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필두로 정재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생명나눔 운동이 이룬 성과와 가치를 미래로 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생명나눔 운동 30년 성과 미래로 이어간다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②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우리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자살예방, 환자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진력한 지 올해로 30년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알리는 한편 생명나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강조하고 확산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올 한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명나눔 운동이 이룬 성과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이를 미래로 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 이에 지난해 여름,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알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회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필두로 정재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올해의 기치를 세운 것. 30주년을 맞아 이웃종교, 넓게는 사회에서 앞서가는 공익법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생명을 나누다, 자비의 길을 걷다'를 기치로 삼아 생명나눔과 불교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30주년 기념식, 사사 제작, 각종 이벤트 등 올 한 해 치러질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명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강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한다. 올해는 특히 주변 소외된 계층을 찾아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젊은 세대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불교계를 넘어 국민적, 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확산되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시작으로 각 교구본사 릴레이 장기기증 서약 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해외 의료물품 지원사업도 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5월에는 제1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 환자 치료비 기금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 생명나눔 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이 가진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이를 향한 다짐과 약속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질 계획"이라면서 "추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30년 동안 묵묵히 선행을 해 준 회원과 불교계, 불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정현숙

생명나눔 30주년 추진위원장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많지만 30년을 이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생명나눔이 가고자 하는 그 뜻을 제가 미력하게나 곁에서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추진위원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정현숙 추진위원장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함께한 지도 어느덧 12년이 훌쩍 넘었다. 2012년, 갑상선암을 앓았던 정 추진위원장은 좀 더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지역본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서울본부에 직접 찾아왔을 정도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정현숙 추진위원장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본부로 활동 영역을 옮기자마자 후원회장직을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정 추진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회원과 후원금액이 3배 이상 급등했다. 정 추진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오랜기간 한국무용을 해왔던 특기를 살려 산하단체로 마하무용단을 조직, 한국의 아름다움이 담긴 춤과 음악으로 포교활동을 펼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지평을 미국까지 넓힌다. 9월 23일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25일에는 타임스퀘어 특설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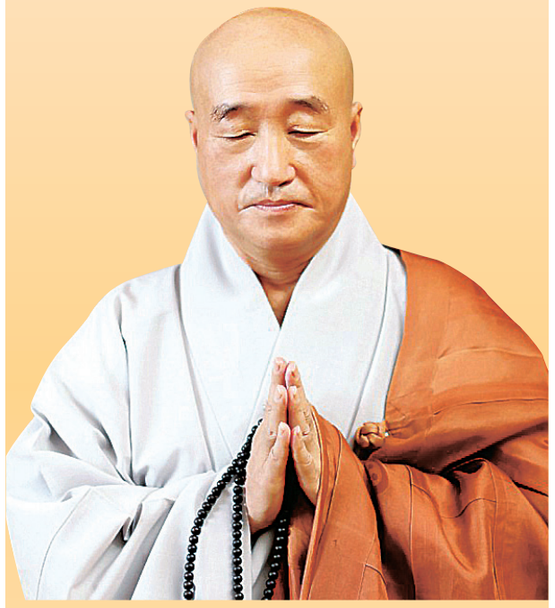
정현숙 추진위원장은 "모든 것은 생명나눔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바른 생각으로 생명나눔 활동을 하다보니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건강하게 살아가야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더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당장 올해 30주년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정 추진위원장은 생명나눔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용,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며 부담감이 크지만 이사장 일면 스님을 적극 도와 생명나눔을 더욱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30년을 발판삼아 앞으로 만들어갈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문화, 기대해주세요."

"행복한 나눔으로 희망 잇겠습니다"



향기로운 꽃나무들이 새싹을 피우는 이렇게 좋은 계절,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 돕기 등을 전개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200여 환자들에게 45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서 25만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는 불교계 유일한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눔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고 더해줍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 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후원계좌 : 농협 301-0009-6876-31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손을 잡아 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달 발행하는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치료비를 모금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